



격이 다른 하이엔드의 세계를 노래하다

FM Acoustics FM 108

글 신우진

생상을 연주하는 스테판 휴의 피아노(Hyperion)를 들어보라. 이같이 아름다운 피아노음을 과연 어떤 앰프가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게다가 귀를 기울이면 그랜드 피아노의 악기 자체의 울림까지 미묘하게 표현 하면서, 눈앞에서 소리만을 가지고 악기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든다. 세밀하게 다듬어 간다면 소리만으로 3D 홀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FM 어쿠스틱스, 아마 오디오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머무르는 앰프의 종착지가 아닐까 하고, 평론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해본다. 나 자신에게 아무것도 구매받지 않고, 아무거나 앰프 하나를 고르라면 FM 어쿠스틱스를 선택할 것이다. 외형뿐 아니라 소리의 특성에도 큰 변화 없이 수십년을 버텨 왔다. 그것도 항상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말이다. 정밀 기계의 본 고장인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앰프의 로고는 마터호른봉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그 뾰족한 봉우리처럼 선이 가늘면서 세밀한 해상도를 가지며, 그 맑은 풍광처럼 여백과 공간 표현이 뛰어난 맑은 소리가 그 어떤 앰프보다 뛰어나다. 나름 해상도가 좋다는 앰프와 비교를 해 듣고 있으면 그다지 해상도도 좋지 않으면서 듣기 피곤하고 과장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고, 따뜻하고 서정성 넘치는 앰프와 비교하면 FM 어쿠스틱스와는 너무 다른 구질구질한 음색의 완성도 떨어지는 앰프로 만들어 버린다.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비교 대상을 한 번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앰프이다.

그러나 이 앰프의 매력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들어본 사람조차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엄청난 고가인데다가, 국내에 물량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나마 국내에 고가의 기기만 수입하여

들어오다가 이번에 저가 모노 앰프가 들어오게 되었고, 108은 파워 앰프로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나. 소형 포노 앰프 같은(동사의 155, 122 등과 같은 사이즈이다) 이 작은 앰프로는 너무 비싸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가격이 FM 어쿠스틱스의 소리를 들어 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대가이다. 아마 앰프의 부피나 무게 대비 가격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 금값이 이리 오르지만 았았다면 금덩이만큼 비쌌을 텐데 말이다. 그리 비싸도 FM 어쿠스틱스는 하이엔드 유저들에게 인기가 있다. 심지어 어큐페이스가 유럽에서 일본 앰프로는 이례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가 바로 소리가 FM 어쿠스틱스와 비슷해서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일본 대표 앰프를 짝퉁 취급당하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비트 있는 저음이 매력적인 S.M.V.의 'Thunder'(Victor/C&L뮤직 라이선스)를 먼저 들어본다. 스피커를 드라이빙하는 능력은 확실히 상급기인 611과 같은 앰프와 비교 대상은 아니다. 스무 평의 넓은 시청실을 채우기 위해 거의 끝까지 볼륨을 올려도 양에 차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볼륨의 부족에도 충분히 스피커를 제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출력은 부족하지만 힘에 부치는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구동력이 딸린다는 인상은 없었고 그 음량 안에서 충분히 우퍼를 제어하고 있었다. 아마 보통의 공간에서 보통의 스피커라면 FM 어쿠스틱스의 108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프로코피예프의 고전 교향곡(DG)을 연주하는 오르페우스 챔버, 실내악단의 연주 한올한올이 세밀하게 묘사되는 하이엔드 앰프의 경향을 보여준다. 하나하나의 현의 소리마다 감정을 묘사해 내며 전체의 균형을 맞춘다. 뛰어난 공간감과 사이사이의 여백의 아름다움은 'Officium'(ECM)의 싱가대의 합창에서, 안 가바렉의 색소폰에서 이 음반 특유의 공간감을 나타낸다. 관악과 성악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특히 성가대의 목소리의 투명한 울림은 인상이 깊다. 고역이 세밀하지만 결코 자극적이거나 날카롭다는 느낌이 없이, 색채감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어떻게 들으면 두께감까지 가지고 있는 듯하게도 들리면서, 해상도가 엄청나게 뛰어난 양면성을 가지면서, 강약의 표현에는 조금 적극적인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더욱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Decca)를 들어보면 리듬감이 매우 뛰어나고 강약뿐 아니라 느림과 빠름의 묘사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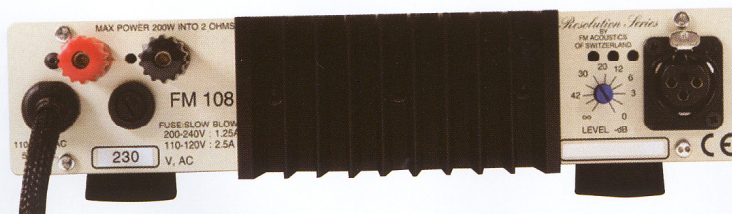
극적이다. 무조건 스피드하게 몰아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타입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듣기 불편한 하이엔드 앰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하이엔드적 성향임에도 음악적 감성이 충분한 이 특성이 FM 어쿠스틱스를 오랫동안 하이엔드의 최고봉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하지만 역시 편성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이 앰프의 가격을 고려하면 아쉬움은 남는다. 하지만 적당한 공간에서, 일반적인 규모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적당한 음량으로 듣는다는 가정 하에 불만은 없다. 즉, 일반적인 청취 상황에서 FM 어쿠스틱스 108의 한계를 경험할 일은 드물어 보인다. 생상을 연주하는 스테판 휴의 피아노(Hyperion)를 들어보라. 이같이 아름다운 피아노음을 과연 어떤 앰프가 민들이 낼 수 있는가? 게다가 귀를 기울이면 그랜드 피아노의 악기 자체의 울림까지 미묘하게 표현하면서, 눈앞에서 소리만을 가지고 악기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든다. 세밀하게 다듬어 간다면 소리만으로 3D 홀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의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악기가 그러하지만, 특히 성악에서, 그리고 피아노 연주에서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느낌은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깨끗하다.

아마도 108을 접한다면 너무 작은 크기에 놀라게 되고, 너무 비싼 가격에 다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악을 듣게 된다면 더욱 놀랄 것이다.

오디오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 점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하이엔드 앰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은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가. 비싸긴 하지만 너무 작지 않은가. 수많은 하이엔드 앰프 중 정말 취향에 딱 맞는 앰프를 보았는데 기껏 프리앰프 전원부만하다니. 존재감이 너무 없다. 과연 같은 값에 고출력의 존재감 있는 하이엔드보다 108을 선택해야 할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사이즈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결정은 쉬울 것이다. 앰프 자체의 외형적 크기, 출력의 크기, 스케일의 크기 등. 아파트에서 듣기 적당한 볼륨으로(즉,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만 수위실에서 연락되지 않을 정도의) 초 대형기가 아닌 스피커로 음향이 아닌 음악을 듣기에 딱 적당하다. 입자가 가늘고 고운 음색을 추구한다면 그 정점의 소리를 들려준 FM 어쿠스틱스 108, 이 비싸고 작은 크기의 앰프의 진짜 놀랄 일은 단지 이 소리는 FM 어쿠스틱스의 최저가의 기기의 소리라는 점이다. 이걸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A**



수입원 : 오디오갤러리 (02)764-6468

- 가격 : 2,500만원
- 실효 출력 : 70W(8Ω), 130W(4Ω), 200W(2Ω)
- 최대 출력 : 140W(8Ω), 260W(4Ω), 400W(2Ω)
- 최대 출력 전압 : 66V · 디스토션 : 0.005%
- 험&노이즈 : -100dB 이상 · 입력 감도 : 0.9V
- 입력 임피던스 : 40kΩ
- 크기(WHD) : 24×6×30cm · 무게 : 4.5kg